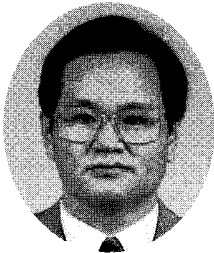




# 이제는 商品이다

‘생산=판매’ 어불성설, 경쟁력 잃으면 설자리도 잃어  
올해 부적합률 0.8% 불과, 우리 농산물 안전성 크게 높아져



**최 홍 보**  
농관원 충북지원 음성·진천출장소

농산물도 이제는 상품이  
다. 따라서 품질 좋고, 안전  
성의 확보는 물론 신선하고  
포장이 잘된 농산물, 브랜드  
가 있는 농산물은 제값을 받  
는다. 물론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  
치 못한 농산물은 가격은 불  
구하고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농산물의 판  
매 및 가격의 양극화는 지난  
추석이후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WTO의 출범  
으로 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은 농산물은 언제든지 수  
입될 수 있어 가격과 품질면  
에서 경쟁력이 없는 국내산

농산물은 우리시장에서도  
설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 좋은 예로 금년 연초에  
당도가 높고 값이 싼 미국산  
오렌지가 10만톤 이상 수입  
되어 국내산 감귤은 물론 사  
과, 배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방울토마토의 소비까지 영  
향을 주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적  
이 있었다.

## ‘품질인증’ 마크보다 관리가 중요

이제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하여 관세인상 등 정부차  
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한국 국민들에게 무조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줄 것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품질과 안전성이 우수한 농산물은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고도 생산자가 결정한 가격에 얼마든지 전하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Cyber)거래를 통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음성군의 일부 주민들은 일반 재배 및 저농약재배로 품질 인증을 받은 건고추, 현미 및 사과 등을 주문 받아 직접 판매하거나 농협 등 단체에 납품하고 있다. 이렇듯 농산물의 경쟁력은 고정 판매처 확보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포장재 표면에 표시된 브랜드, 생산자 이름, 「품질인증」마크만 보고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여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 농업인, 농약안전사 의식 크게 높아져

요즘 친환경농산물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 친환경농산품질인증 승인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횟수를 관행보다 반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자칫하면 일년농사를 망칠수 있고, 과일나무는 버

려면 칼슘, 붕소, 마그네슘 등 미량요소와 깻묵, 쌀겨, 야채 등을 발효시킨 액비와 목초액, 미생물제제 등 작물 보호제의 체계적인 사용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농약도 인·축에 비교적 안전한 저독성 또는 생물농약, 천적이용 등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농약의 오·남용을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인 수확전 살포시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릴 수도 있다.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의 물리, 화학성을 개선하고 땅심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발효된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내병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줄이

방지하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뿌리고자 하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유·액제, 수화제는 기준농도로 희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고 입제, 분제는 사용기준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인 수확전 살포시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수확 10일전) 및 출하단계 농산물 1만8천8백65건을 채취,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안전성부적합 농산물은 1백53건(0.8%)으로 99년도 1.3%, 98년도 4.2%에 비하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

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납이 들어 있거나 농약이 다량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중국산 농·수산물도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농산물의 품질관리도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크기, 선택, 결점 중심의 선별에서 당도, 산도를 비파괴선별하는 종합선별 방식으로 바꾸어 품질을 차

판매까지 냉장 유통시키는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확대하여 유통기한도 늘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유통기간이 짧은 복숭아, 토마토, 포도, 신선채소류를 예냉 유통시킬 경우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가 크게 촉진될 것이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의 연구결과 복숭아를 수확 즉시 예냉후 기능성상자(필름에 방담 및 항균처리)에 포장, 저온 유통시킨 결과 저장성이 2~3일 정도로 짧은 '미백도'의 경우 20일 이상 유통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이제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판매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품질과 안전성은 물론 신선도, 기능성까지 차별되지 않으면 제값을 받을 수도, 판매할 수도 없다. 앞으로 농업인은 물론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도 우수한 농산물의 재배기술개발, 선별저장, 유통방법 개선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상품화로 우리 농산물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농이정보**

**앞으로 농업인은 물론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도 우수한 농산물의 재배기술개발, 선별저장, 유통방법 개선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상품화로 우리 농산물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타났다. 이는 그동안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이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여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차별화'만이 국제경쟁력 보장**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별화 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 예로 제주도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비파괴종합선과시스템을 도입, 금년산 하우스감귤을 당도 12도 이상 산도 1% 미만으로 선별하여 출하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농산물의 물류방식도 수확 후부터 운반, 진열